

# 올 춘향제 개막공연, 유명 아이돌 뮤지컬로

춘향제전위, 기본계획 설명회  
4월 30일부터 6일간 개최  
해외 거주자도 선발대회 참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제향이 기존 관객자 중심에서 관광객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 춘향제 고유의 정신을 계승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향. <남원시 제공>

올해 춘향제는 유명 아이돌이 문을 연다. 그동안 국립민속극악원이 펼쳤던 개막공연을 올리는 유명 아이돌 주연의 대형 퓨전뮤지컬로 바꾼 것이다. 뮤지컬 제목은 '춘향은 살아있다'이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운영 박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0회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90회째를 맞는 춘향제는 '춘향, 사랑을 90th(고)하다'를 주제로, 오는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6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나온 9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이 가득한 남원 춘향제를 표방한다.

올해 춘향제는 대표 프로그램이 확 바뀐다.

그동안 국립민속극악원 중심으로 펼쳐졌던 개막공연을 올리는 유명 아이돌 주연으로 출연하는 대형 퓨전뮤지컬로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춘향제의 대표 브랜드 공연(가제 : 춘향은 살아있다)으로 삼

겠다는 계획이다.

춘향제 대표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는 행사 2일차(5월1일)에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 해외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접수를 한다.

어린이날에는 몽룡놀이터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각종 체험부스가 다

채롭게 운영된다.

정체성도 강화됐다. 춘향제향은 확대·운영된다. 그동안 관계자 중심이었던 춘향제향을 관광객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바꿈으로써 춘향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춘향제 고유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춘향제 역사물 전시를 비롯해 정상급 대중가수 공연, 관객이 호흡하는 라디오 공개방송 진행, 관광기념품인 춘향제 굿즈 제작 판매 등을 새롭게 시도해

재미를 더한다.

모든 공연 무대에는 차광막을 설치해 관람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운영부 춘향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올 춘향제에 다양한 장르의 물입도 높은 공연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수도권 콘텐츠 기업 5곳 익산에 '등지'

텍스터스튜디오 등 원광대 서해관 입주...홀로그램 기술개발

익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14일 텍스터스튜디오 등 수도권 소재 홀로그램 관련 콘텐츠 기업 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원광대 서해관 내 400여㎡(120여평)에 입주해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실증사업, 컴퓨터그래픽 영상 제작 및 실감콘텐츠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이들 기업에 행·재

정적 지원을 해주고, 원광대는 공간과 장비·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들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과 해당 기술을 평가·실증하고 제품화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익산이 홀로그램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홀로그램 산업은 문화·관광,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익산시와 텍스터스튜디오 등 수도권 홀로그램 콘텐츠 기업 5개 사는 지난 14일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제공>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익산을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코로나19 확산 막자" 군산시 이색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소독의 날' 인증샷 진행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해

소하고자 감염 예방 '소독의 날'을 정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페이스북에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로, 집, 상가, 다중집합시설 등을 소독하는 본인의 사진을 페이스북 댓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좋아요' 클릭, 친구 태그, 이벤트 게시물 공유를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군산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26일 발표한다. 사진을 올린 참여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해 군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소독 캠페인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도심속 공터를 생태공원으로

국비 5억원 들여 석교리 야산 식생 복원·휴식공간 조성

고창군이 장기간 방치되고 불법경작으로 훼손된 도심 야산과 공터를 '명품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심사 결과, 고창군의 '보릿골 숲정이 생태복원 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부지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고창읍 석교리 새마을공원 인근 야산으로, 고창 대표공원으로 조성하는 모로비리공원 예정지의 일부다. 모로비리는 마한국 고창지역 도시국가 이름이다.

이 곳은 고창의 관문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불법경작으로 농자재 등이 버려지면서 우범지대로 인식돼 왔다.

고창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5억원을 들여 이 곳의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상수리나무 군락 및 생태보호종(쇠딱따구리·왕자팔랑나비)의 서식처로 복원하고, 야생화원·전망데크 등을 만들어 생태학습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창군은 다음달 복원 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훼손된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만들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되돌려 받아 생태환경 복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진섭 정읍시장과 지역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들이 최근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에 막걸리 특화거리 만든다

민·관, 정읍만의 콘텐츠 개발 논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는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 막걸리를 정읍 대표 먹거리로 특화하고, 막걸리 특화거리를 조성해 정읍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8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상호협력력을 다지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정읍만의 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체 대표들은 정읍시 계획에 공감하고, 정읍 막걸리만의 특화된 맛과 서비스, 홍보활동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읍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 타당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막걸리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지역 막걸리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쌀 소비를 확대시키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The K 손해보험 | NH손해보험